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에 관한 연구

윤현석(부여고등학교)
eqdoctor@hanmail.net

김언주(충남대학교)
ojkim@cnu.ac.k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유형별 낙관성의 수준과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과학영재science gifted, 체육영재athletics, 미술영재art, 음악영재music, 학문영재academic 그리고 평재mainstream students 를 각각 60명씩 표집하였으며, 이들의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eligman의 낙관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Seligman이 제시한 낙관성 해석방법을 이용하였고,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는 Duncan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대체로 다소 비관적 수준을 나타내었고, 학문영재와 과학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미술영재와 체육영재의 낙관성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영재와 평재 간의 낙관성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영재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반성적 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주요어: 영재, 낙관성, 지속성, 확산도, 개인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낙관주의(낙관성)는 긍정적인 사고의 습관이며 사건이나 상황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성 또는 성향이다. 낙관주의자는 사물이나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며, 좀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낙관주의자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좋은 성적을 받고, 직장에서는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큰 업적을 올리고, 사회인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비관주의(비관성)는 부정적인 사고의 양식이며 사건이나 상황을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나쁜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성 또는 성향이다. 비관주의자는 사물이나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비관주의자는 학교성적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보다 떨어지고, 직장에서의 사무처리 능력은 자신의 선천적 능력보다 못하며, 무능력자 혹은 열등아로 평가되기도 하고, 건강상태도 나쁘다. 비관주의자는 소진(burnout), 무력감,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낙관주의자의 정신은 희망을 낳지만 비관주의자들의 정신은 절망을 낳는다.

그렇다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Seligman은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중요한 차이는 좋은 사건과 나쁜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Seligman(1991)에 의하면, 낙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의 원인을 지속적, 확산적, 내적인 것으로 믿고,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의 원인을 일시적, 특정적,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의 원인을 일시적, 특정적, 외적인 것으로 믿고,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의 원인을 지속적, 확산적, 내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존경받는 경영자·정치가, 세계 일류의 음악가들, 올림픽 선수들, 유명한 과학자들 등의 공통된 특징은 낙관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각 분야의 CEO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러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우리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어떤 정도일까? 영재(talent and gifted)들은 일반지능, 학문적성, 창의능력, 예술재능, 과학재능, 신체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이 뛰어나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다. 이러한 영재교육의 목적은 영재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진로 등에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현행 영재교육을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영재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재들의 성공과 행복, 국가사회발전을 예언하기 위하여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에 입각하여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을 알아보고 영재유형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영재유형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영재와 평제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국내외적으로 낙관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구자는 Seligman의 낙관성 이론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전개한다. Seligman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설명하는가(귀인 행동)의 관점에서 낙관주의를 정의한다. 수영을 좋아 하는 미국사람들은 1988년 미국 올림픽 팀의 멤버인 비온디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스포츠 기자들은 비온디가 일곱 개의 금메달 정도는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게임까지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스포츠 해설가들은 비온디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은 시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패배감에서 벗어나 남은 다섯 경기에서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때, Seligman은 그의 성취를 당연시하였다. Seligman은 올림픽 이전에 비온디의 낙관성 검사를 하였으며, 낙관성 점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과정에서 수영 코치는 실제 기록보다 더 저조한 기록을 꾸며서 말해 주었다. 그리고 기록이 저조 하니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충고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비관적인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합에서 더 좋은 기록을 내었다. 이것은 그가 낙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비관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선수들에게 거짓으로 저조한 기록 시간을 말해 주면 다음 경기의 기록이 더 저조하였다.

직든 코든 자신에게 밀어닥친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쉽사리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은 자기 불행에 대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로 문제의 장본인이야. 영원히 고치지 못할 거라구. 나는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일 거야.” 그러나

불행에 굴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건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야. 금방 지나갈 거야. 게다가 아직 내 인생은 많이 남아 있잖아” 하는 식으로 반응한다.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습관적인 태도는 단순히 입밖에 내는 말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즉 언어는 대부분의 뇌세포를 지배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성취의 씨앗이 된다.

사건 또는 상황을 설명하는 태도는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떤지, 즉 나 자신을 가치 있고 보상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치 없고 희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지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를 결정해 주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에 대하여 설명하는 태도(언어 습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지속성, 확산도, 개인화이다.

1. 지속성(permanence: permanent vs. temporary)

지속성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지, 아니면 지속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의 원인이 지속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나쁜 일은 계속될 것이고, 살아가는데 항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무력감을 이기려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맨 날 잔소리야.	방청소를 안 하면 잔소리를 하는 구나.
우리 상사는 정말 나쁜 자식이야.	우리 상사가 오늘 저기압이야.
왜 항상 나한테 한 마디도 안 하니?	너 요즘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

만약 ‘항상’ 이나 ‘결코’와 같은 늘 지속되는 습성을 염두에 두고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비관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가끔’ 이나 ‘요즘’ 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쁜 일이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좋은 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쁜 일을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정반

대이다. 좋은 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보다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아.	나는 항상 운이 좋아.
최신을 다했어.	난 정말 타고났어.
내 상대가 지친 것 같아.	그 사람은 내 상대가 못 되겠군.

낙관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항상’이라는 단어처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이에 비해 비관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의 원인을 그때의 상황이나 요행으로 생각하며 ‘가끔’이라는 단어처럼 일시적이라고 믿는다. 좋은 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거둔 다음에도 더 열심히 노력한다. 좋은 일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요행으로 그랬지 하고는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많다.

2. 확산도(pervasiveness: specific vs. universal)

지속성이 시간적 개념이라면 확산도는 공간적인 개념이다. 확산도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특징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 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주요한 부분에서 고통받을 때 그 어려움을 특징적인 것으로 믿고 이내 잊어버리고 이내 다른 생활을 시작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고통스러워한다. 자신이 겪은 실패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한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특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한 부분에서는 무력해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자신 있어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선생님들은 공정하지 못해.	저 선생님은 공정하지 못해.
나는 냉정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만 냉정해.
책은 쓸모 없는 거야.	이 책은 쓸모 없어.

좋은 일을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나쁜 일을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의 반대 현상이다. 낙관적인 사람은 나쁜 일에는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좋은 일이 생기면 만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비관적인 사람은 나쁜 일에는 전반적인 원인이 있고 좋은 일에는 특정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나는 수학 과목은 잘 해.	나는 모든 과목을 잘 해.
친구가 축구는 잘 해.	친구는 운동을 꼭 잡고 있지.
그녀에게는 내가 멋있게 보였지.	나는 원래 멋있어.

3. 개인화(personalization: internal vs. external)

개인화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내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지 아니면 외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귀인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영역이다.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내부화)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한다(외부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기가 무가치하고 소질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이들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편이다. 낮은 자의식은 종종 나쁜 일에 대한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나는 정말 멍청해.	너는 정말 멍청해.
나는 포커에는 정말 소질 없어.	포커에 운이 안 따르는군.
나는 항상 불안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좋은 일을 낙관적으로 설명하는 태도는 나쁜 일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의 반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관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
뜻밖의 행운이 굴러 와서	이 행운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의 실력은	내 실력은
다른 사람들이 웃기고 있거든요.	제가 분위기를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지속성과 확산도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무력한 상태로 있는지를 통제하느냐와 관계 있는 개념이지만 개인화는 나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이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지속성	좋은 일	지속적 귀인	일시적 귀인
	나쁜 일	일시적 귀인	지속적 귀인
확산성	좋은 일	전반적 귀인	특정적 귀인
	나쁜 일	특정적 귀인	전반적 귀인
개인화	좋은 일	내부적 귀인	외부적 귀인
	나쁜 일	외부적 귀인	내부적 귀인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영재성에 대한 정의는 1972년의 미국 교육부, Renzulli, Tannenbaum, Gardner, Stenberg, Felderhusen 등의 정의가 있다. 정의가 다양한 만큼 학자들간에 영재성의 정의가 합의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학자들간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면, 영재성은 '능력이 뛰어난 사실'을 지칭하고, 영재비율은 '상위 15~20%'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소재한 충남과학고등학교, 충남체육고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공주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술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각 유형의 영재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집단으로서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들을 각각 60명씩 표집하였고, 영재들의 비교집단으로서 일반 인문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학년을 대상으로 평재 60명을 표집하였다. 각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성별분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집할 때 남녀비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불량반응을 제외한 연구 대상 인원은 과학영재 45명, 체육영재 50명, 음악영재 60명, 미술영재 60명, 학문영재 57명, 평재 60명으로 총인원 332명이었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Seligman의 낙관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이 검사가 일반화된 도구라는 가정 하에 이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두 가지 상황과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두 가지 상황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며 세 가지 영역은 지속성, 확산성, 개인화를 말한다. 낙관성 검사는 좋은 일의 지속성(PmG; Permanent Good), 나쁜 일의 지속성(PmB; Permanent Bad), 좋은 일의 확산성(PvG; Pervasiveness Good), 나쁜 일의 확산성(PvB; Pervasiveness Bad), 좋은 일의 개인화(PsG; Personalization Good), 나쁜 일의 개인화(PsB; Personalization Bad) 등 여섯 분야로 각각 8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2지 선다형으로 정답에는 1점 오답에는 0점을 부여한다. 검사 문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검사 문항의 예시

시험에서 '수'를 받았네요.	PvG
①난 정말 똑똑해	1
②내가 시험 본 과목은 자신 있어	0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PsG
①난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1
②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성격이 좋아.	0
나만 빼고 친구들 모두 감기에 걸렸네요.	PmG
①난 요즘 건강이 좋거든요.	0
②전 원래 튼튼해요.	1

각 분야의 최대 점수는 8점이고 최저 점수는 0점이 된다. 나쁜 일의 총 점수 (Total B; PmB+PvB+PsB), 좋은 일의 총 점수(Total G; PmG+PvG+PsG)를 산출하였고, 좋은 일의 총점에서 나쁜 일의 총점을 빼어서 낙관성 점수(G-B)를 산출하였다. Seligman이 영역별로 제시한 각각의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낙관성 점수의 해석 방법

구분	매우 낙관	다소 낙관	보통	다소 비관	매우 비관
PmG	7점 이상	6점	4~5점	3점	2점 이하
PvG	7점 이상	6점	4~5점	3점	2점 이하
PsG	7점 이상	6점	4~5점	3점	2점 이하
PmB	1점 이하	2~3점	4점	5~6점	7점 이상
PvB	1점 이하	2~3점	4점	5~6점	7점 이상
PsB	1점 이하	2~3점	4점	5~6점	7점 이상
Total G	19점 이상	17~19점	14~16점	11~13점	10점 이하
Total B	6점 이하	6~9점	10~11점	12~14점	14점 이상
G-B	8점 이상	6~8점	4~5점	1~2점	0점 이하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하여 WinSPSS 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낙관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Seligman이 제시한 낙관성 해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영재유형간 그리고 영재와 평재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Duncan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영재와 평재의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영재와 평재의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영재와 평재의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구분	영재유형	n	M	SD	Med	Skew	Kurt	Min	Max
PmG	과학	45	4.09	1.40	4.00	.15	-1.04	2	7
	체육	50	3.70	1.61	4.00	.08	-.17	1	8
	미술	60	3.25	1.18	3.00	.20	-.82	1	6
	음악	60	3.93	1.60	4.00	.14	-.37	1	8
	학문	57	3.91	1.63	4.00	-.24	-.35	0	7
	평재	60	3.68	1.70	3.00	.50	-.54	1	8
PvG	과학	45	4.60	1.57	5.00	-.65	-.47	1	7
	체육	50	3.30	1.43	3.00	.36	-.54	1	7
	미술	60	3.75	1.65	4.00	-.07	-.99	1	7
	음악	60	4.02	1.72	4.00	.30	-.70	1	7
	학문	57	4.89	1.53	5.00	-.16	-.56	2	8
	평재	60	3.98	1.36	4.00	.24	-.77	2	7
PsG	과학	45	3.00	1.61	3.00	.72	.72	0	8
	체육	50	3.16	1.49	3.00	.33	-.55	1	6
	미술	60	3.33	1.81	3.00	.40	.30	0	8
	음악	60	3.32	1.44	3.00	.12	-.34	0	7
	학문	57	3.47	1.75	4.00	.24	-.35	0	8
	평재	60	3.38	1.30	3.00	.67	.81	1	7

<표 2>를 <표 1>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mG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거의 같았으며 다소 비관적 수준이었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과학영재가 가장 높았고 미술영재가 가장 낮았다. 또한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미술영재보다 높았

고 과학영재, 체육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보다 낮았다.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vcI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대체로 비슷하며 보통 수준이었다. 영재집단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학문영재, 과학영재 순으로 높았고 미술영재, 체육영재 순으로 낮았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미술영재, 체육영재보다 높았고 학문영재, 과학영재, 음악영재보다 낮았다.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sG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거의 동일하며 다소 비관적 수준이었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비슷하였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학문영재 이외는 평재보다 낮았다.

2. 영재와 평재의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영재와 평재의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재와 평재의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구분	영재유형	n	M	SD	Med	Skew	Kurt	Min	Max
Pmb	과학	45	2.34	1.47	2.00	.52	.02	0	6
	체육	50	2.94	1.89	3.00	.37	-.64	0	7
	미술	60	3.17	1.57	3.00	.58	.69	0	7
	음악	60	2.43	1.47	2.00	.37	.40	0	7
	학문	57	2.25	1.92	2.00	.62	-.63	0	7
	평재	60	2.37	1.60	2.00	.87	.61	0	7
PvB	과학	45	2.13	1.18	2.00	.69	1.23	0	6
	체육	50	3.00	1.31	3.00	.34	-.08	0	6
	미술	60	2.77	1.45	3.00	.29	.63	0	7
	음악	60	2.73	1.15	3.00	-.15	-.71	0	5
	학문	57	2.21	1.50	2.00	.12	-.92	0	5
	평재	60	2.60	1.46	2.50	.27	-.34	0	6
PsB	과학	45	5.44	1.34	6.00	-.35	.23	2	8
	체육	50	4.22	1.46	4.00	.42	.08	1	8
	미술	60	4.42	1.51	5.00	-.11	-.38	1	8
	음악	60	4.55	1.80	5.00	-.25	-.57	1	8
	학문	57	5.40	1.58	5.00	-.20	-.69	2	8
	평재	60	4.45	1.63	5.00	-.36	-.28	1	8

<표 3>를 <표 1>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mB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거의 같았으며 다소 낙관적 수준이었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학문영재, 과학영재 순으로 높았고 체육영재, 미술영재 순으로 낮았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음악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보다 높았으며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보다 낮았다.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vB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비슷하였으며 다소 낙관적 수준이었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과학영재, 학문영재 순으로 높았고 음악영재, 미술영재, 체육영재 순으로 낮았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음악영재, 미술영재, 체육영재보다 높았으며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보다 낮았다.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sB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대체로 같았으며 보통 수준이었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음악영재, 미술영재, 체육영재는 보통 수준이었고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는 다소 비관적 수준이었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보다 높았으며 음악영재, 미술영재, 체육영재보다 낮았다.

3. 영재와 평재의 낙관성 수준

영재와 평재의 낙관성 수준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재와 평재의 낙관성 수준

구분	영재유형	n	M	SD	Med	Skew	Kurt	Min	Max
Total G	과학	45	11.69	3.24	12.00	-.15	-.54	5	19
	체육	50	10.16	3.22	10.00	.03	-.41	4	18
	미술	60	10.33	3.37	10.50	.13	-.55	3	18
	음악	60	11.27	2.95	11.00	.28	-.10	5	18
	학문	57	12.28	3.84	13.00	-.07	-.04	5	22
	평재	60	11.05	3.02	10.00	.68	.02	6	19
Total B	과학	45	9.96	2.20	10.00	-.07	-.61	5	14
	체육	50	10.16	3.08	10.00	.30	-.56	5	17
	미술	60	10.35	2.62	11.00	-.47	-.60	4	15
	음악	60	9.72	2.62	9.00	.23	.58	3	17
	학문	57	9.86	3.28	10.00	.18	.44	2	19
	평재	60	9.42	2.75	9.00	.31	-.66	4	15
G·B	과학	45	1.73	4.39	2.00	.20	.36	-7	14
	체육	50	.00	4.37	.00	-.26	.21	-10	9
	미술	60	-.02	4.47	.00	.38	-.52	-8	11
	음악	60	1.55	4.42	2.00	.05	.75	-9	14
	학문	57	2.42	5.95	2.00	.17	-.04	-11	16
	평재	60	1.63	4.29	1.00	.21	.22	-7	14

<표 1>를 <표 1>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Total G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다소 비관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학문영재, 과학영재 순으로 높았고 미술영재, 체육영재 순으로 낮았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미술영재, 체육영재보다 높았고 학문영재, 과학영재, 음악영재보다 낮았다.

Total B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음악영재, 학문영재 순으로 높았으며 체육영재, 미술영재 순으로 낮았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영재들보다 높았다.

G·B의 영역에서 영재집단과 평재집단의 낙관성 수준은 대체로 다소 비관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재집단 내의 영재유형에 따른 낙관성 수준은 학문영재, 과학영재, 음악영재 순으로 높았고 다소 비관적 수준이었으며 체육영재, 미술영재 순으로 낮았으며 매우 비관적인 수준이었다. 평재와 영재유형간의 낙관성 수준을 비교해 보면 평재가 음악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보다 높았고 학문영재, 과학영재보다 낮았다.

4.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차이

집단(과학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 평재)간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좋은 일'의 낙관성 수준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SS	df	MS	F	Sig
PmG	집단간	24.07	5	4.82	1.93	.089
	집단내	812.67	326	2.49		
	전 체	836.75	331			
PvG	집단간	87.75	5	17.55	7.28	.000
	집단내	785.89	326	2.41		
	전 체		331			
PsG	집단간	7.23	5	1.45	.58	.715
	집단내	811.43	326	2.49		
	전 체	818.66	33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mG, PsG의 영역에서 집단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좋은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vG의 영역에서 집단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과학영재와 학문영재가 체육영재보다 좋은 일에 대하여 더 확산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차이

집단(과학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 평재)간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나쁜 일'의 낙관성 수준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SS	df	MS	F	Sig
PmB	집단간	39.33	5	7.87	2.85	.016
	집단내	900.96	326	2.76		
	전 체	940.29	331			
PvB	집단간	29.10	5	5.82	3.16	.008
	집단내	599.54	326	1.84		
	전 체	628.64	331			
PsB	집단간	74.36	5	14.87	6.02	.000
	집단내	505.69	326	2.47		
	전 체	880.06	33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나쁜 일'에 대한 낙관성 수준 PmB, PvB, PsB의 영역에서 집단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미술영재는 다른 분야의 영재들보다 나쁜 일에 대하여 더 지속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는 미술영재와 체육영재보다 나쁜 일에 대하여 더 특정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는 다른 유형의 영재들보다 나쁜 일에 대하여 더 내부적으로 귀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전반적인 낙관성 수준의 차이

집단(과학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 평재)간 전반적인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낙관성 수준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구분	변량원	SS	df	MS	F	Sig
Total G	집단간	176.15	5	35.23	3.27	.007
	집단내	3511.79	326	10.77		
	전 체	3687.94	331			
Total B	집단간	31.80	5	6.36	.82	.537
	집단내	2533.93	326	7.77		
	전 체	2565.72	331			
G-B	집단간	277.05	5	55.41	2.52	.030
	집단내	7182.46	326	22.03		
	전 체	7459.51	331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Total B의 영역에서 집단간 낙관성 수준 차이가 .05수준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otal G, G-B의 영역에서 집단간 낙관성 수준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Total G와 G-B의 영역에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체육영재와 미술영재의 낙관성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영재유형별 낙관성의 수준과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연구집단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과학영재,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학문영재,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평재를 각각 60명씩 표집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Seligman의 낙관성 검사를 사용하여 낙관성의 수준을 측정하였고 불량반응을 제외한 수집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PmG, PvG, PsG 영역에서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다소 비관적 수준을 나타내었고, PmB, PvB, PsB 영역에서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다소 낙관적 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좋은 일'에 대하여 일시적, 특정적, 외부적으로 귀인시키고 있고, '나쁜 일'에 대하여 지속적, 확산적, 내부적으로 귀인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 기대와는 다른 것으로 이의 원인이 독특한 동양 문화 또는 한국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양인 또는 한국인의 낙관성에 대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Total G, Total B 영역에서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각각 다소 비관적 수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이들 영역에서 학문영재와 과학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미술영재와 체육영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B 영역에서 체육영재와 미술영재의 낙관성 수준은 매우 비관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각각의 영재성 차이와 교육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셋째, PmG 영역에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체육영재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mB, PvB, PsB 영역에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체육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otal G, G-B 영역에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체육영재와 미술영재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다른 유형의 영재들보다 높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인지적 요인이 낙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영재들의 낙관성 수준은 다소 비판적 수준이고, 과학영재와 학문영재의 낙관성 수준이 체육영재, 음악영재, 미술영재보다 유의하게 다소 높으며, 영재와 평재간의 낙관성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재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제언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낙관성 이론이 많지 않다. 낙관성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겠다.

둘째, 낙관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낙관성 교육프로그램을 발달단계에 맞춰 투입함으로써 낙관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낙관성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Seligman이 제작한 낙관성 검사는 서양문화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동양인 또는 한국인의 낙관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낙관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낙관성 검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분야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전국적이고 다양한 영재들을 대상으로 광범하고 심오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언주, 이군현, 윤현석, 김성수, 조한익, 박은희(1998). 우리 아이 EQ 높이기. 서울: 학지사.
- 김언주, 윤현석(2000). EQ업그레이드. 서울:엘맨.
- 박노용, 김혜성, 옴김(1996). 낙관성 훈련. 서울: 오리진.
- 박노용, 옴김(1999). 낙관적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이유. 서울: 오리진.
- 박노용, 옴김(2000). 자녀에게 줄 최상의 선물은 낙관적인 인생관이다. 서울: 오리진.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군현(1989). 영재교육학. 서울: 배영사.
- 이현수(1999). 낙관주의자가 건강한가. 서울: 학지사.
- 정진홍(2001). 감성바이러스를 펴뜨려라. 서울: 위즈덤하우스.
- 한국교육개발원(1996).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보고 CR 96-28.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Peterson, C. et al.(1982).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NY: Plenum Press.
- Seligman, E. P.(1991). *Learned optimism*. NY: Knopf.
- Shapiro, L. E.(1997). *How to raise a child with a high EQ*. HaperCollins. NY: HaperCollins
- Sluyter, D. J. & Salovey, P.(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Y: Basic Books.

Abstract

A study of optimism level in the gifted

Hyeon-Syok Youn (Buyeo high school)

Ohn Ju K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ptimism level of the gifted;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optimism level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gifted; and to compare the optimism level of the gifted with that of mainstream students.

332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nsisted of 45 science gifted, 50 athletics gifted, 60 music gifted, 60 art gifted, 57 academic gifted, and 60 mainstream students. The optimism questionnaire developed by Seligman was used for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optimism level of gifted was somewhat pessimistic. Second, the optimism level of academic gifted and science gifted was higher than that of athletic gifted and artistic gifted. Third, non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optimism level between gifted students and mainstream students.

Key word: gifted · optimism · permanence · pervasiveness · personalization